

---

# 비뇨기계 질환에 있어서 고식적 조영검사와 CT Urography의 유용성 비교

전남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김성욱, 김용완, 안인현, 이종호, 최남길

---

**목 적 :** 비뇨기계 질환에 있어서 Multi-detector CT를 이용한 CT Urography와 고식적 비뇨기계 조영검사를 비교하여 CT Urography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비뇨기계통 이상으로 고식적 비뇨기계 조영검사와 CT Urography를 모두 시행한 환자 20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남자가 6명, 여자가 14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6세였다.

검사방법은 Multi-detector CT장비(Qx/iightspeed, GE medical system)를 이용하여 조영전 scan을 하였고, 복부를 압박하고 조영제를 초당 2 cc로 120 cc로 주입하고 60초 후 횡격막에서 장골능까지 scan하였다. 다시 조영제 주입 5분 후에 압박대를 풀고 다시 2분 후 신장상부에서 치골결합부위까지 관전압 230 kVp, 관전류 260 mA, 테이블 이동속도 15 mm(HS mode), 절편두께 2.5 mm, 절편간격 1.25 mm로 scan하였고, Advantage Windows Workstation ver 4.0(GE medical system)을 이용하여 3D reconstruction하였으며, 영상의 평가는 신장, 요관, 방광의 병변위치에 따른 병변의 일치도와 발견율을 평가하였다.

**결 과 :** 검사결과 총 20예 중 악성 및 양성질환이 10예, 석회화가 4예, 요관 협착 및 폐쇄가 3예, 신낭종이 1예, 정상이 2예이었으며, 병변의 일치도는 80%로 나타났다.

병변의 발견율은 CT Urography가 총 20예 중 18예로 90%, IVP가 16예로 80%로 CT Urography의 병변 발견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 론 :** CT Urography는 목적하는 장기를 여러 가지 재구성 algorithm으로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비뇨기계 악성질환의 주위 장기로부터의 침윤여부와 림프절 전이 등을 관찰할 수 있어 향후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